

통사하는 불교 신사서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심장전원 041)734-2680
대전 노년시안산면 승정리

법적 조처 창조 스님 강릉 보광사 주지



“죽음은 새로 사는 길로 접어드는 전환점에 불과하다는 큰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연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피어 있는 동안의 어려움이 자는 동안에는 부질 없게 보이겠지만 꽃이 저야 내년에 또 봄이 오는 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템플스테이 체험 반응

오는 20일부터 40여 일간 실시되는 템플스테이를 앞두고 봉은사가 4월28일 외국인과 내국인 대상으로 선제형 등 4시간 동안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했다.

낮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발우공양, 다도, 선체형, 사찰소개 순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인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인 등 모두 13명,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무엇이 불편한 지를 살펴가

나 됐다. “좌선에 대해 깊이 있게 알고 싶었는데 초보적인 설명에 그쳐 아쉽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또 반 수 이상은 “프로그램 등 만들기가 있어 참석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기도 했다.

내국인들의 지적도 적지 않았다. “플라스틱 발우와 스테인리스 수저를 전용이 있는 토기나 목기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의사전달이 100% 되지 않은 것 같다”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에 정확하고도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예정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템플스테이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찰 스스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봉은사의 시범 실시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전국 31개 사찰에게 값진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불교문화재 3만 1천여건 DB화

2011년까지 분포지도 제작 GIS 구축 보수 정비 시급 135건 선정 중점 관리

문화재청 10년 계획 마련

2011년까지 전국 1천8백여개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3만 1천200여 건에 대한 일제조사 및 DB화 작업이 진행된다. 또 세계사 대응 전문을 비롯해 석조문화재 7건, 건물지 12건, 사지(건물의 불교문화재가 국가지원 중점관리대상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실)은 문화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시안)’을 4월 30일 발표했다.

시안의 정책과제는 건조물문화재·동산문화재·사지 등의 문화재와 그 주변경관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한 ‘원형보존 부문’, 문화재 관리행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 부문’, 문화재 유형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효율적 활용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 ‘원형보존 부문’의 동산문화재 분야에는 전적(典籍)문화재 종합실태조사와 함께 2011년까지 전국 1천8백여개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불교문화재 3만1천200여 건에 대한 일제조사 및 DB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동산문화재가 집중된 사찰과 서원 등에는 유물의 도난·

훼손 방지 및 전시공개를 위한 유물 전시관·보호각 건립 기금을 지원한다. 문화재 사법 처벌 강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은 2003년까지 개정한다.

매장문화재 분야에서는 2011년까지 전국 시군별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고, 황룡사지 9층 목탑 등의 소실 문화재 복원을 위한 한국문화재보존과학연구원 2003년 법인으로 설립한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시급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135건을 선정, 중점관리대상에 삼고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정비를 실시한다.

문화재청의 이번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에는 2011년까지 10년간 총 5조 6천43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6면

인도에 ‘傳法의 등’을

■ 1인 수계비용 1달러 지원 ‘개종운동 지원 사업’

인도의 불개종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개종운동은 빈번한 불교교제, 영주 하나 없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수계식을 여는데 소요되는 1인당 비용 1달러(600루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불교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센터건립

불교 지도자가 부재한 인도 현지 스님들의 수행과 교육 및 생활보장은 물론, 재가불교 지도자 양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가칭) ‘불교지도자 교육센터’를 현지 불교단체들과 연대 건립을 추진합니다.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달러에서 30만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법당 건립 및 불상 조성 지원

마을과 지역내 불상을 모시기 원하는 지역을 선정해 불상봉안을 지원하고, 법당(문화복지센터 기능)건립을 추진중이거나 공사가 중단 및 지역 등에 법당 건립을 지원합니다. 법당조성은 30여평 규모의 경우 1만달러 정도가 소요되고 불상은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가 소요됩니다.

불교지도자 육성 등 6부문 지원 불자들의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재가불교지도자 양성사업

인도내 불개종운동은 불교교육과 함께 직업, 문명복지 등 자립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불교지도자들의 육성과 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병행코자 재가불교지도자 학교, 전문연수원 개설을 지원합니다.

■ 불가족 친안을 위한 자활 지원

인도전체 문맹률 62% 가운데 불개종자들이 절대다수를 점하며 대부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기 위해 직업교육과 불교교육을 병행할 교육공간의 건립을 지원합니다.

■ 티베트 난민 경력 메일의 불가족 친인 지원

인도내의 티베트 난민들이 경작한 메일 5여헥타르가 판로가 없어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메일을 구입, 불가족 친인 및 불교사원에 기증하고자 합니다.

● 기간 : 2002년 5월~2004년 5월(3년간)
● 인도불교 전법지원운동 사무국 : (02)745-7799(참여불교재가연대)
● 사무국 통장번호 : 조흥은행 741-04-365950 계좌명 : 인도불기

주최: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후원: 한국불교중앙협의회,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



한국불교 역사문화 기념관 신축공사 기공식
불기 2546(2002). 4.30

불교역사문화관 건립 30일 첫 삽

한국불교의 보고,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건립되는 한국불교역사문화관 기공식이 4월 30일 조계사 경내 신축현장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기공식에서 추후위원장 정대섭스님은 “천개백년 한국불교의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고영배기자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동국대서, 대학·연구소 학자 등 200명 참가

한국불교학결집대회가 4-5일 동국대 중강당과 명진관에서 열렸다. 동국대, 원광대, 위덕대 등 5개 대학과 14개 학회 10개 연구소 및 연구원에 소속된 200여 명이 11개 분과로 나눠 논문을 발표한 이번 대회는 그 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불교학 단체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학문과 의 연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분과별 발표에 앞서 열린 공동 주제 발표의 화두는 ‘한국 불교학의 현황과 전망’이었다. ‘한국 불교학의 어제와 오늘’을 발표한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는 “해방 이후 한국 불교학계는 양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고, 최근 원전 연구의 폭이 넓어

지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다”면서 “불타의 교설에 대한 탐구와 해석보다는 불교사 연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보다 그 방법이나 절차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한국 불교 교단은 전래 초기부터 보편화된 화엄신앙이 집진적으로 중요한 법통을 형성하면서 화엄신앙으로의 통합을 이뤘다”며 “회통, 원융 통합의 화엄신앙법통은 한국불교의 전통이며 정체성이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6면
권형진 기자 jmy@buddhapan.com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이 공개됐다. 고사로 수집기간 이종학 사문연구소장은 1일 조선 왕실사신라고할 불국사에 불공을 드리며 보시한 예물을 찍은 일제시대 사진 3점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세종이 하사한 ‘삼보인’ (‘불국사법랍을’을 새긴 도장·사진과 숙종비 인현왕후가 아들 낳기를 빌며 바친 ‘탁의’ (불단 앞 제대상을 덮는 비단보, 비단신 ‘화해’ 등이다. 이들 문화재는 일제시대까지 불국사에 보관돼 오다 해방 뒤 사라진 것으로 1936년 발행된 불국사 역사 시리즈 속에서 발견됐다. 권형진 기자

삼보인·탁의·화해 사진 3점 공개

송 유 역불을 국사로 내걸었던 조선 시대에도 큰 사찰들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번창했음을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불교의식

1. 불자님은 관혼상제(성인식, 결혼, 장례, 제사)를 불교식으로 하십니까?
① 반드시 한다 ② 전혀 하지 않는다
③ 경우에 따라서 한다 ④ 사찰에서 한다

2. 관혼상제를 불교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해야 한다 ② 형편에 따라 자유다
③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사찰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설문 참여: 5월 9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접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69호 31면에 실립니다.

5월 12일 종로는 연꽃세상

연등축제가 여러분 모두를 종로로 초대합니다

<p>연등놀이</p> <p>장엄등과 연희제의 신나는 놀이 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1일(토) 오후 7:00 - 9:00 조계사 → 인사동 → 종로2가 → 국세청 → 우정국로 	<p>계등연진</p> <p>화려하고 장엄한 연등축제의 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2일(일) 오후 7:00 - 9:30 평대문 운동장 → 종로 → 우정국로 	<p>불교문화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2일(일) 정오 - 오후 9:00 조계사 앞 우정국로 ▶ 불어마당: 풍물, 명산채, 신무도, 내팔출, 관불의식, 청소년 연수공연 ▶ 먹거리 살거리: 사찰음식 상차, 전통민장 견내, 장식용 연꽃, 불교용품, 환경용품 ▶ NGO 마당: 복지활동 홍보, 북한난민돕기 바자회, 의양의 등, 포교연서 전시 ▶ 국제불교마당: 외국인 등 안뜰기, 대만 불교, 동남아 불교, 티베트 민화전시 ▶ 전통문화마당: 장승조각, 서각, 탁본, 전통매듭, 천연염색, 지와, 불화, 잠룡공예
<p>어울림마당(연등법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2일(일) 오후 4:00 - 6:30 평대문 운동장 ▶ 단체별 입장, 단체등 시상식, 그룹별 연의발표 ▶ 풍속 상정물 개막 ▶ 연등법회 	<p>대동인마당</p> <p>너 나 없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화회의 마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12일(일) 오후 9:30 - 10:30 우정국로 외랑식당 	 <p>봉축위원회 02)725-6641 www.LLF.or.kr</p>